

## 학생주체성 발달, 특성화고 교육의 기회와 도전

본 연구는 한국교육종단연구2013을 활용하여 초등학교 6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의 학생주체성 발달궤적을 분석함. 분석 결과, 특성화고 학생들은 초등학교 6학년 이후 고입 전까지 주체적 마음가짐이 하락하지만, 고교 입학 시점 이후 꾸준히 회복세를 보이는 것을 확인하였음. 성적을 통제하지 않은 기저모형에서는 학교 유형에 따른 격차가 뚜렷했는데, 중학교 1학년 성적이 주체성 발달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기초학력 미비 시 장기적으로 주체성 발달이 저해될 수 있음을 시사함. 특성화고는 학생주체성 형성에 기여하는 학교문화와 교사 역량에 편차가 크므로 주체성 발달을 위한 정서적 지원뿐 아니라 교수학습 지원이 병행되어야 하며, 자원이 부족한 학생들의 주체성 형성과 발현 제한을 고려할 때 특성화고가 가정과 지역사회 자원을 연결하는 허브로서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01 분석의 필요성 및 분석 자료

전통적인 개념의 성취를 넘어 다양한 진로 경로와 불확실성에 직면한 특성화고 학생들을 이해하는 핵심 기제로서 주체성 형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

- 급변하는 교육환경 속에서 단순한 학업성취를 넘어, 학생들이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학습의 주체로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학생주체성이 미래교육의 핵심역량으로 부각됨
  - OECD를 비롯한 국내외 교육계는 급변하는 교육환경 속에서 교육정책의 재설정을 모색하고 있음
- 학업성취나 특정 기술 습득에 치중한 기존 교육 패러다임은 더 이상 학생들의 성공을 보장하지 못하며,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주체적 판단과 행동을 할 수 있는 역량 개발이 필수적임
  - 특성화고 학생들은 취업과 진학이라는 이중 진로 선택에 직면하기 때문에, 직업세계의 불확실함 속에서 자율적 의사결정능력과 주체적 학습능력이 더욱 중요함
- 본 연구는 초등학교 6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의 시기를 대상으로 학생주체성의 종단적 발달 궤적을 추적하여 특성화고와 다른 학교 유형의 학생 간 주체성의 수준 차이와 변화 양상을 비교·분석함

※ 이 글은 '이수현 외(2024), 『학생주체성에 기초한 특성화고 미래 교육혁신 모형』, 한국직업능력연구원'에서 일부 내용을 발췌, 재정리함

## 분석 자료: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종단연구2013(2013~2020년)」

- 한국교육종단연구2013(2013~2020년) 자료에서 ‘주체적 마음가짐’과 ‘주체적 행동(주도적 행동, 노력 지속, 자원 활용)’으로 학생주체성 측정도구를 구성함<sup>1)</sup>
- 6개 시점(초6~고2)에서 특정 연도에 누락된 변인은 인접 연도의 중간값으로 보정하여, 5점 척도로 측정된 종단패널 데이터셋을 구축
- 분석에 투입된 표본은 6,145명이며, 이 중 특성화고 학생은 928명(15.1%)

- 1) 주체적 마음가짐: 학습과 삶에 대한 주인의식을 바탕으로 자신의 흥미와 가치를 고려해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성취할 수 있다는 신념과 열망을 포함하는 내적 성향
- 주도적 행동: 삶에서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스스로 과업을 적극적으로 탐색·창출하고 적극적으로 착수하는 행동
  - 노력 지속: 내적·외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책임감을 가지고 목표 달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행동
  - 자원 활용: 목표 달성을 위한 다양한 과업 수행 과정에서 주변사람, 장소, 환경 등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능력

## 02 학생주체성의 종단적 변화 추이

### 특성화고 학생들은 초6 시점부터 다른 학교 유형 학생들보다 주체성 수준이 낮았으며, 격차가 유지됨

- 다층모형에 기반한 성장곡선모형을 사용하여 초등학교 6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의 주체성 발달을 추적한 결과, 특성화고 학생들은 초6 시점부터 이미 다른 학교 유형 학생들에 비해 낮은 수준을 보였음
- 성적을 통제하지 않으면, 특성화고 학생들의 주체성 수준이 다른 학교 유형 대비 격차가 뚜렷하게 나타났으며, 그 격차가 계속 유지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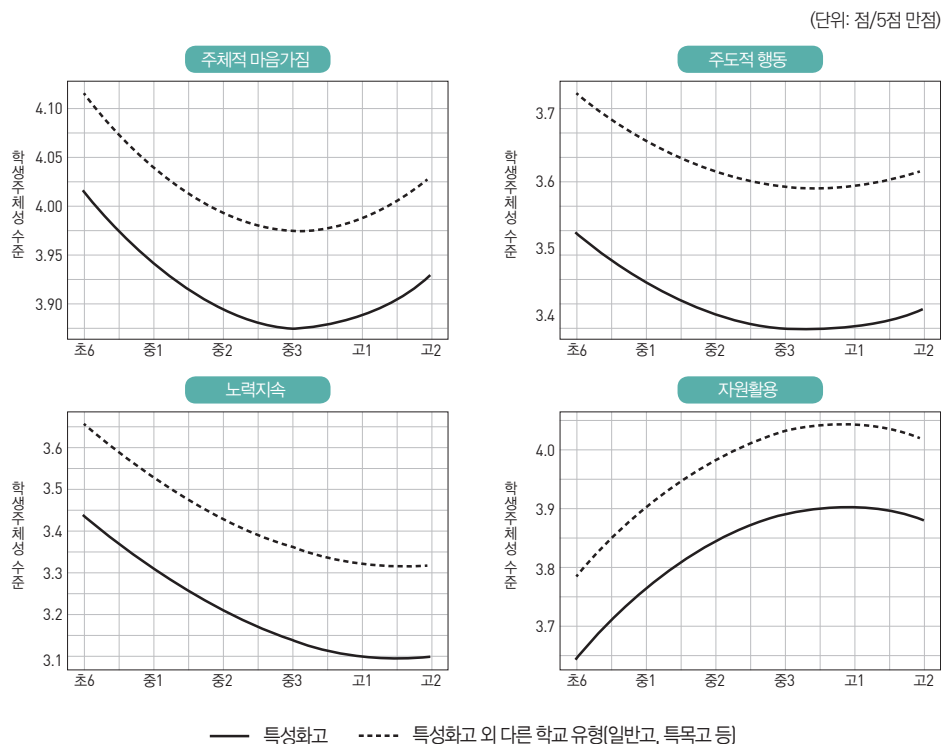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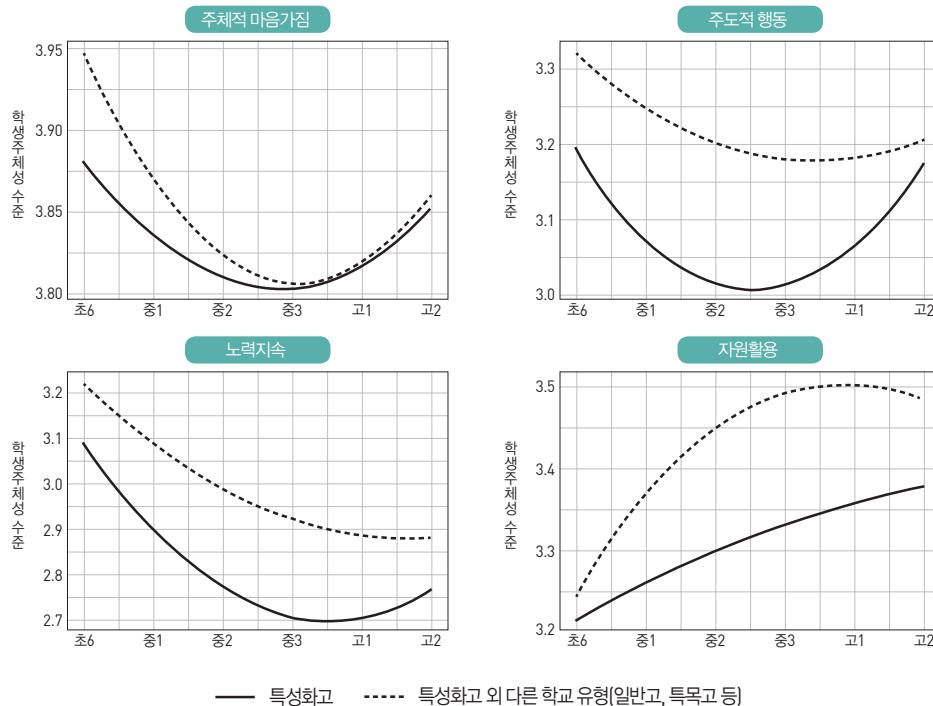
그림 1 | 학생주체성의 종단적 변화추이(인구통계학적 변인만 통제)

### 중1 성적을 통제하면 ‘주체적 마음가짐’과 ‘주도적 행동’에서는 격차가 크게 줄어들었음

- 중학교 1학년 성적을 통제하면, 고등학교 1학년 시점부터 특성화고와 그 외 학교 유형 집단 간 ‘주체적 마음가짐’과 ‘주도적 행동’의 차이가 상당 부분 좁혀짐

- ‘노력지속’은 고등학교에 진입하면서 특성화고 학생들이 다른 학교 유형 학생들보다 다소 빠르게 회복하는 경향을 보이고, 특성화고 학생들의 ‘자원활용’ 수준은 완만하게 증가하여 중3~고1 사이에 가장 크게 벌어짐
- 이는 특성화고 교육이 학생주체성 발달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측면이 존재함을 보여주는 결과임

(단위: 점/5점 만점)



| 그림 2 | 학생주체성의 종단적 변화추이(인구통계학적 변인+중1성적 통제)

### 03 특성화고 학생의 주체성 형성에 있어서 인구통계학적 격차

#### | 성별, 가구소득, 부모 학력, 지역 등 여러 요인이 상호작용하여 주체성 발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남

- 특성화고에 재학 중인 여학생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주도적 행동에서 더 높은 수준을 보였으며, 남학생은 ‘주체적 마음가짐’에서 높은 수준을 나타냄
- 특히 중학교 시기에는 ‘주도적 행동’ 하락은 학업 부담 증가와 심리적 변화로 인한 자신감 저하와 관련될 수 있는데, 여학생의 경우 고등학교 진입 이후 양상이 반전되어, 최종적으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높은 ‘주도적 행동’ 수준에 도달함
- 가구소득과 어머니 학력의 상호작용에 따른 학생주체성 변화에서도 뚜렷한 차이가 나타남
  - 소득이 높고 어머니의 학력이 높은 가정의 학생들이 고등학교 시기에 높은 수준의 주체성을 유지한 반면, 소득이 낮고 부모 학력이 낮은 가정의 학생들은 주체성 발현에 어려움을 겪음
- 지역별 비교에서 특별시와 읍면 지역 학생들이 전반적으로 더 높은 수준의 주체성을 보였는데, 해당 지역 학생들이 지역의 교육 및 사회 환경 특성상 다양한 경험과 자율적 학습 기회를 상대적으로 더 많이 접할 가능성이 있어 보다 자율적이고 주체적인 태도를 보일 수 있었던 것으로 해석됨
  - 읍·면 지역 학생들은 특성화고 진학 이후 주체적 마음가짐이 두드러지게 회복되는 경향을 보임
  - 반면, 중소도시 학생들은 상대적 자원 부족으로 인해 주체성 발현에 제약을 받았을 가능성이 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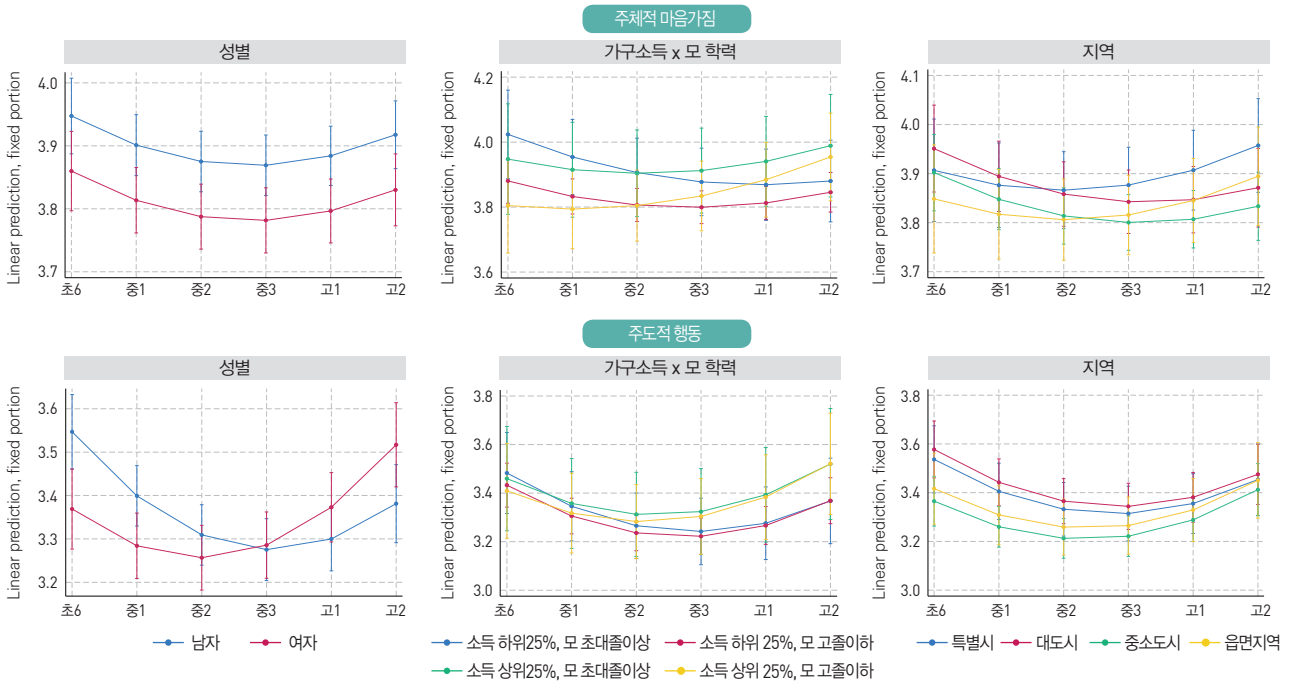


그림 3 | 인구통계학적 격차에 따른 학생주체성 형성의 차이

## 04 시사점

- 중학교 시기 기초학력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학생들은 이후 학업 과정뿐 아니라 자기주도적 학습과 진로 선택에서도 지속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 이는 미래 역량 형성에 심각한 제약으로 작용할 수 있음
- 즉, 중1 시기의 학업성취가 학생주체성 발달에 결정적 역할을 하며, 이른 시기에 충분한 기초학력을 갖추지 못하면 이후 학생주체성의 발달이 크게 저해될 수 있음을 시사함
- 특성화고 학생들의 주체성이 고등학교 시기에 회복되는 양상이 관찰되었지만, 이러한 회복이 제도적·환경적 뒷받침 없이 지속되지 못한다면, 이들은 진학·취업의 전환 과정에서 다시금 불리한 위치에 놓일 가능성이 큼
- 주체성 하락은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학습 환경이 초등학교보다 상대적으로 경직되어 있고, 학업성취 중심의 분위기가 강하기 때문에, 학생주체성 발현을 억제하는 요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을 시사함
- 학생주체성은 교실 수업과 생활지도 과정에서 가장 직접적으로 길러지므로, 교사가 학생의 자기주도적 학습과 진로 탐색을 촉진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전문성 개발 연수가 필요함
- 현재 특성화고의 경우 학생주체성 발달에 기여하는 학교 분위기에 편차가 크기 때문에, 학교문화 쇄신과 교사 전문성 개발이 동시에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 정서적 지원뿐 아니라 교수학습 과정 전반에서 학생주체성 개발을 실질적으로 반영하는 재학습이 절실히 요구됨
- 자원이 부족한 학생들의 경우, 주체성 발달이 제약됨으로써 변화하는 사회에서 다양한 진로와 학습 기회를 활용하는 데 한계가 나타날 수 있음
- 다른 교육적 변인과 마찬가지로 경제적 자원과 부모의 학력이 학생의 주체성 발달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을 확인했으며, 경제적 자원이 충분할 경우 학습 자원 활용 기회가 확대되어 주체성 발달을 촉진하나, 경제적 자원이 부족할 경우 주체성 발현에 제약을 받는 것으로 나타남
- 자원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학교가 가정, 지역사회 자원과 연결되는 허브로 기능해야 하며, 학생들이 다양한 자원과 기회를 경험하며,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하고 진로를 설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